

第139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 4 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2月19日(水) 午後2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3年度서울市立大學校所管業務報告의件

審査된案件

1. 2003年度서울市立大學校所管業務報告의件 3面

(14시 03분 개의)

○委員長 金基星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9회 임시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새해 첫 임시회가 개의된
이후 시기적으로 많은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가운데도 불
구하시고 그동안 교육청 등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관의
2003년도 업무보고계획 청취와 서울역사박물관 등 3개 기
관의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합리적인 정

책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회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회가 의회의 핵심기능인 시정감시와 견제역할을 건실하게 수행함은 물론 의회 차원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 첫 임시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진리·창조·봉사의 대학이념 아래 교육목표 달성과 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총장 이하 전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적응력과 공급자 위주의 대학교육이 점점 수요자, 즉 입시생이 감소하는 교육현실에서 대학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교육개혁과 올바른 대학교육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시의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 이해를 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치는 데 의회관을 확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시립대학교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年度서울特別市立大學校所管業務報告의件

(14시 05분)

○委員長 金基星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동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長 李棟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새해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대학교에서는 총장 이하 모든 교수, 직원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괄목할 만한 학교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학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교수,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 학문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직교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박재복, 교무처장 한형수, 학생처장

이용범, 기획발전처장 최용선, 사무처장 이용선, 법정대학장 권기범, 경상대학장 이종대, 공과대학장 김창민, 도시과학대학장 김창석, 예술대학장 박한진, 시민대학장 최양수, 중앙도서관장 염상섭, 전자계산소장 민현수, 사회복지관장이준형, 서울학연구소장 홍대형,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장 곽태운)

몇 분 교수님은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시방재연구소장은 아시다시피 대구 참사 조사차 지금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몇 분은 참석을 못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3학년도 저희 대학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체 학생의 41%가 장학금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방학기간을 이용한 학생 해외견문을 금년에도 500명에게 어학연수 겸 해외 선진문물을 견문토록 지원하여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학·대학원 학생정원 증원 추진을 위해 대학 100명, 대학원 100명 등 200명을 증원 추진목표로 IT분야 등 첨단분야의 우수인력을 배출토록 노력하겠으며 교육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기숙사 및 국제교류센터를 금년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05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첨단정보통신 기술시대인 21세기 정보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 1등급의 과학기술계산용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지난 1월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21세기관에 첨단 영상강의시스템인 멀티미디어 강의실과 전자도서관을 설

치하여 3월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넷째,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수 23명의 신규채용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교수 증원 14명을 추진하여 현재 71% 수준인 교수확보율을 75%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며 아울러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여 교수의 승진 재임용의 자리와 연구보조비 차등지급 등에 활용하고 교수의 학술연구 조성비와 연구보조비 지원,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비 지원 및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등을 계속 실시 하겠으며, 다섯 째, 시민생활 향상과 서울시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시민대학과 사회복지관, 서울학 연구소, 반부패 행정시스템 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전자정부연구소 등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서울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학의 2003학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발전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星 기획발전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기획발전처장 최용선 교수입니다.

.....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시립대학교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星 최용선 기획발전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조금 전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동 총장님께서서는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총장님께서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교직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숙 위원님.

○金明淑 委員 김명숙 위원입니다.

현안업무 25쪽 신입생 선발에 따른 홍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립대학교에서는 시립대학교라는 상품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여기에 보면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기획발전처장이 말씀드리겠

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저희 학교 홍보계획이나 홍보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희 학교 나름대로 공립대학이라는 한계 안에서도 홍보는 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인터넷상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나 중앙일보가 별도로 수험생들을 위한 홍보사이트를 따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이트에 약 1,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전국의 각 고등학교에 저희 학교의 홍보자료를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팸플릿이나 여러 가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뿌리고 있고, 주요 학원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저희 홍보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저희가 신입생 모집 광고를 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심혈을 기울여서 신문지상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金明淑 委員 그런 일반홍보 말고 시립대학교라는 고급상품을 어느 정도 격조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미리 느낄 수 있게끔 상시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시에 시립대학교라는 것을 어필하고 마케팅하는 부분은 없나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아마 위원님께서 다른 시립대학들의 매체를 통한 홍보 이런 것을 목격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는 특별히 그런 매체를 통해서 따로 광고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하철 20여개 역에 저희 대학교 큰 포

스터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 곳곳에 있는 서울시의 전광판에 저희 학교 홍보가 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金明淑 委員 아시는 분들은 시립대학교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시립대학교가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서울시공무원들의 자제를, 어떤 행정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는 곳 이런 한계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았어요. 시립대학교에 원서를 접수해 놓고 시립대학교가 과연 어느 정도의 학교인지 탐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탐문했더니 알 수 있는 채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찾아보고 입시설명회도 가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입시에 관한 자료집을 들춰보고 해도 일반대학과 별반 차별성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의 배치기준을 보니까 학부에 따라서는 연·고대 이상에 달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정도의 점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지 않은가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올린 사람의 심정이 나는 시립대학교의 예비학생 학부모가 되고자 하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린다는 것을 제가 접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나도 전근대적인 관료방식, 여기가 제2의 서울대학교라고 생각하고 마케팅부분은 전혀 손을 쓰지 않는 것인지, 하나의 이 글을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홍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 전부터 홍보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또한 거기에 대한 노력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배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더 상세하게 짜서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金明淑 委員 이 학교가 이런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데 바로 거기에 몰입해서 못한다는 점, 또 알맹이는 좋고 충실한데 포장과 디자인……. 나름대로 얼굴역할을 제대로, 학력수준을 못 따라가는 학교, 이것 얼마나 치명적인 일입니까?

그런 부분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잘 알겠습니다.

○金明淑 委員 아까 총장님 보고에서 21세기관을 올해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21세기관은 그 동안 열려 있지 않았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21세기관을 개관은 했습니다만 그 건물의 명칭에 걸맞는 그러한 첨단시설은 한꺼번에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차근 갖춰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컴퓨터를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해서 21세기관에 넣어놓았고…….

○金明淑 委員 그러면 그것이 지금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것인가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아닙니다. 슈퍼컴퓨터는 연구용이고, 최첨단 멀티미디어 강의실 2개가 3월말 개관되고 또

전자도서관이 21세기관 안에, 우리 중앙도서관의 한 기능인 전자도서관 부분을 21세기관에 설치했습니다.

○金明淑 委員 그리고 도서관 이용이 차고 넘쳐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없는, 즉 수요가 넘쳐서 자리가 모자란다고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시험기간 중에는 어느 대학이나 자리에 모자랍니다.

○金明淑 委員 그런 경우의 대안은? 자리가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반 강의실로 보충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각 건물마다 독서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주 급격하게 수요가 폭발하지 않는 한 대체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明淑 委員 제가 그런 애로도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의실이 부족해서, 정말 여기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밑바닥의 애로를 수렴하는 것이 거기에 직결되는 사항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명분만 좋지 실제로 그런 조그만 애로도 해소하지 못하면 너무 공허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토요일무제 때문에 강의실, 도서관 오픈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단축됐지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저희 대학은 기본적으로 24시간 개방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무제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단축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金明淑 委員 도서관이 토요일 몇 시에 마감하는데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단과대학 도서관은, 단과대학 도서관은 각 단과대학에 따로 독서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없습니다. 휴일 없이 하고 있고, 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열람실 책 있는 자리는 일정한 시간이,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개방하고 그 외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가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金明淑 委員 주위에서 그런 애로를 호소하는 것을 접하고서 제가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러시다면 잘못된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수채용을 할 때 혹시 학생들 앞에서 시강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현재는 안 갖고 있나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교무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敎務處長 韓亨洙 교무처장 한형수입니다.

교수 신규채용을 하면 기초심사 단계에서는 지원자가 초빙하려고 하는 채용분야에 맞는가를 선별하고 난 다음에 본심사에 들어가면 지원들의 업적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본심사의 3배수에 해당되는 심사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공개발표를 합니다. 공개발표를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교수들, 그리고 대학원생, 학생들도 그 공개발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金明淑 委員 주로 자기 전공과목에 대한 학생들, 그렇습니다.

○敎務處長 韓亨洙 그렇습니다.

○金明淑 委員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星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俞仙穆 委員 유선목 위원입니다.

시민대학 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市民大學長 崔良秀 시민대학장 최양수입니다.

○俞仙穆 委員 지금 4개 분교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지요?

○서울市民大學長 崔良秀 네.

○俞仙穆 委員 그런데 강서분교가 임대료 때문에 처음에는 강서분교를 폐교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재계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市民大學長 崔良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俞仙穆 委員 하셨습니다?

○서울市民大學長 崔良秀 네.

○俞仙穆 委員 임대료관계 때문에 굉장히…….

○서울市民大學長 崔良秀 임대주 쪽에서는 인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시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아마 양해를 한 것 같습니다.

○俞仙穆 委員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사실은 제가 거기를 지난 연말에 가봤어요. 너무 구석진 자리에 있어서 저도 한참 찾아갔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본교나 을지로분교, 강북분교에 비해서 강서는 가양동 끝에 더듬어 찾아가야 할 정도로 교통도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것이 임대기간이 다 되어서 장소를 옮긴다면 너무 외진 쪽 말고 강서와 양천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재계약을 하셨군요?

○서울市民大學長 崔良秀 그 동안 시의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신 이유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현재의 강서분교나 강북분교의 위치를 해당 자치구가 있는 부근에 자치구의 임대건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접선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俞仙穆 委員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것이, 강서쪽 주민들의 접근도가 낮은 이유는 물론 강의의 어떤 질이나 홍보관계도 있고 지자체들이 또 문화센터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지만 굉장히 거리나 교통편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서울市民大學長 崔良秀 네, 그렇습니다. 강서분교는 97년 개설당시부터 입지선정이 조금 잘못…….

○俞仙穆 委員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들으러 오는 이용률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것이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인이 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옮겼으면 했는데 옮기지 못했군요?

○서울市民大學長 崔良秀 네, 그렇습니다.

○俞仙穆 委員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주문을 했었어요. 시민대학을 정말로 제대로 공부해야 될 때 못한 그러한 시민들의 학업에 대한 만족을 주기 위해

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학점은행제를 여기도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자격기준을 설치해서 해 줄 것을 주문했었어요. 그런데 1월 15일 운영위원회를 하셨군요?

○서울市民大學長 崔良秀 네, 그렇습니다.

○俞仙穆 委員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으셨나요?

○서울市民大學長 崔良秀 이미 이번 1월 15일 운영위원회 이전에 작년 운영위원회에서 평생교육 관련한 학점은행제 도입을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자문해 주셨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총장님이신데 그 총장님이 지금 현재 시립대학교 본교 내부의 여러 가지 교육여건 개선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마당에 거기까지 학점은행제를 도입해서 선불리 확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연구를 해가면서 차차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만 보류되고 있습니다.

○俞仙穆 委員 그런데 제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시민대학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자치구 같은 데도 직원들을 상대로 대학에서 임시개설을 해요, 자치구 안에다 요일별로.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점은행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민대학의 기능에 시민의 어떤 교육에 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따로 선 순위·후 순위를 가릴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시민들이 요구하고 또 지금 현재 사회적인 필요성이 그것을 꼭 후

순위로 미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총장님께서 결정을 그렇게 하셨지만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저도 의회에서 좀 같이 함께 연구를 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市民大學長 崔良秀 14기부터는 도입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俞仙穆 委員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강서문제도 뻔히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옛날에 그것을 연기한다는 측면에서 재계약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각 자치구에, 만약에 강서구에 20개 동이 있으면 20개 동에서 똑같이 문화복지센터를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치구별로 문화원도 있고. 또 여러 센터를 통해서 이런 어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면 꼭 시민대학에 와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만드셔야 돼요, 특화된.

그래서 정말 멀지만 분교를 찾아가지 않으면 그 강의를 들을 수 없는, 꼭 필요한 그러한 강좌를 설치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좀 연구하셔서 다음 달에 또 한번 논하죠.

○서울市民大學長 崔良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俞仙穆 委員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崔桂洛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화 위원님.

○徐鍾和 委員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학생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몇 번째 얘기되는 것인데요.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봐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생들 해외건문 지원 있지요? 새로운 선발방법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나온 게 없나요?

○學生處長 李龍範 학생처장 이용범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예고했던 것들이 외국어시험으로 하는 것으로 해놨었고 그래서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이 있으면 그 시험성적을 전부다 토익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해서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徐鍾和 委員 아니 그런데 영어만 가지고 선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작년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영어만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선발방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서로 동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9월에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10월에 이미 선발방법이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는 학생들은 그렇게 선발하더라도 올해 다시, 그러니까 내년도 갈 학생들 선발을 할 때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學生處長 李龍範 그래서 올해 제가 신입 총장이 5월 1일부터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상황이 일부 변경

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그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나가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그 관계는 신임총장이 들어오셔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을 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직 정확히 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徐鍾和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저도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똑같은 얘기,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든지, 전혀 납득을 못 하시겠다든지 뭐 이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납득을 또 시켜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새로운 안을 만들어 오셔서 작년에 보니까 10월에 공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금년 10월에 공고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좀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공고를 하는 게 맞지요.

○學生處長 李龍範 저희가 4월말까지 임기가 끝나니까 끝나더라도 일단 후임으로 오시는 분하고 의논해서 보고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쓰겠습니다.

다.

○徐鍾和 委員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學生處長 李龍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鍾和 委員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무처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앞에 일반현황보면, 대학이념이 진리·창조·봉사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목표보면 심오한 학문적 이론 및 창의적 전문기술을 지닌 지성인을 기른다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삼고 싶지는 않는데 여기 뒤에 죽 업무보고 해놓으신 내용들을 보면 비단 시립대학교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보통 요즘 우리 교수님들이나 대학생들 만나보면 고등학교의 연장이다라고들 얘기 많이 하지요.

취업을 위해서 단순지식을 어떤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냥 단순지식을 계속 주입식으로 공부하는데 대학이 그러니까 그러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적으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여기 업무보고 해놓으신 것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 이렇게 해서 상대평가제도를 확대한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글썄,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대평가제도라는 것이 학생들을 똑같이 잡고 고등학교

때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벽돌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똑같은 잣대가지고 똑같이 찍어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창조, 창의적 전문기술, 심오한 학문적 이론, 뭐 이러한 부분들하고는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상대평가제도를 확대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敎務處長 韓亨洙 서종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적평가를 종래에는 주로 절대평가방식을 많이 적용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평가 결과가 좀 정상곡선을 긋는다든지 그러기보다도 교수님들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떤 성적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정확한 평가의 잣대를 설정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점도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좀더 상대평가를 부분적으로 적용해야만 학생들이 좀더 수업을 듣는데 경쟁적인 노력이 고취되지 않을까 그런 점도 감안이 되어서 저희 학교는 완전 상대평가는 아니고 부분적인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고 하니 B⁺ 이상의 학점을 50%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B⁺, A⁰, A⁺, 그 사이에는 간격을 터버리고 B⁺ 이상 50%까지만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B⁺미만, 그러니까 B⁰, C⁺, C⁰, 이런 학점도 학점간에 칸막이를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철저한 상

대평가는 아닙니다.

○徐鍾和 委員 교수님 잘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고 더 잘 아시니까 이렇게 하실 텐데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하고 이것이 가져오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敎務處長 韓亨洙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문제가 있으니 실용적인 측면의 교육도 하지만 교과과정을 개편하면서 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교양을 교육할 수 있는 교과과정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徐鍾和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桂洛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一 委員 이강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2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고 하고 싶습니다. 교수직원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학기능이 교수의 연구부분이라든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분인데 교수의 과부족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데 서울시 직원이 과충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시 직원들이 와서 대개 어떤 업무들을 합니까?

○事務處長 李容先 이용선 사무처장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본부에 학생과, 교무과, 또 학사관리과,

총무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시설과 등이 나누어져서 그런 일반 학교행정을 밑받침할 수 있는 일반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과대학별로 단과대학내에 있는 일반 행·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李康一 委員 제가 알고 있는 바와 대동소이한데 그렇다면 과충원이 된 이유 자체가 일종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시 직원 중에 일종의 피난처형태로 서울시립대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입니까?

○事務處長 李容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과원이 되어 있는 것은 시의 인력개발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개발팀들이 서울시 각 부서별로 업무행정지원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일시적으로 오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李康一 委員 그렇다면 1년내내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긴데?

○事務處長 李容先 네, 아닙니다. 사실 조금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립대 행정조직은 근간 190명 정도에서 4·5년 사이 20여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시 직원들의 숫자는 상당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낮아져 있고 조금 행정적인 부담이 조금 많아서 근간에 시 조직하고 상의해서 인원을 충원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李康一 委員 그레요.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부분들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닌 것으로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서울시 직원 중에서 일부분이 어떤 서울시립대학을 우습게 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쉬었다가는 곳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한심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그 답변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잠깐 볼까요? 장학금 부분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장학금 수혜액이 국내최고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學生處長 李龍範 네, 맞습니다.

○李康一 委員 그렇다면 좀 물어볼게요. 어떤 기준으로 최고인지, 그것이 금액기준인지, 인원기준인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學生處長 李龍範 저희가 인원비율로서는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액수로는 제일 높지는 않은데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등록금이 낮기 때문에 등록금까지 고려를 한다면 여러 면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李康一 委員 그렇다면 등록금 기준으로 했을 때 등록금 대비해서 장학금의 비율은 그래도 상당히 수위권내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學生處長 李龍範 네.

○李康一 委員 그렇다면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

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불우한 학생들이 혹시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학업하기 힘든 상황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學生處長 李龍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康一 委員 그 다음에 학업분위기조성 문제 때문에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서관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장께서 나와 계시면 도서관장께 질문을 드릴까요?

○中央圖書館長 廉祥燮 네.

○李康一 委員 지금 도서관이 운영되는 실태에 대해서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서관의 이용이 철저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고정석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 아시지요?

○中央圖書館長 廉祥燮 네.

○李康一 委員 그런 것이라든가 대리로 서너 개씩 자리를 잡아주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팡석이라고 옛날엔 했던 것 같은데 자리만 잡아놓고 앉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방법이 마련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中央圖書館長 廉祥燮 도서관장 염상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고요.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서너 시간 자리를 비우면서도 자기 물건을 거기다가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것을 학생들이 줄곧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학생들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자리를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도나도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호소를 해 가지고 서너 시간 자리를 빌 경우에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을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서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안은 3층에 열람실 있는 로비가 공간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로비에 사물함을 옮겨놓는다든가 아니면 더 확충을 해서 학생들이 자리가 빌 경우 거기에다가 사물을 놓고 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과 더불어서 직원들이 서너 시간씩 빈자리를 볼 경우에는 물건들을 일정한 장소에 전부 모아놓아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문제는 끈질기고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열심히 자리를 차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어떤 악의적인 것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李康一 委員 관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답변을 좀 짤막하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中央圖書館長 廉祥燮 아무튼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제가 지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결들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저희 도서관의 상황이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기숙사 문제와도 조금 맞물려 있는데 그 기숙사가 건립이 된다면 약간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왜냐 하면 지방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자리를 차지해서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기숙사가 아마 건립이 되고 하면 그 문제는 약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도서관이 앞으로 증축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李康一 委員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생회 활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문제를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피상적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서서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제 경험담에 비춰서 제 견해를 밝히면 상당히 강력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계도해서 2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도서관의 이용문화 자체를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는 상당부분 개선이 됐는데,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과연 그것이 개선될까 하는 상당히 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기숙사가 완비되면 도서관 문제가 완화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대리로 자

리를 맡아주는 부분 있지요?

○中央圖書館長 廉祥燮 네.

○李康一 委員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이 현실 인데요.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과포화상태라고 하셨는데, 이용자에 비해서 좌석이 모자라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中央圖書館長 廉祥燮 네, 그렇습니다.

○李康一 委員 그렇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회에도 일종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떠넘겨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율권을 어느 정도 갖고 해낼 수 있는 방법, 재단해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단언하건대 지금 관장님께서 접근하시려고 하는 것으로는 방법이 저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기존에 2·30년 동안 학교 내에서 다 해왔던 방법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中央圖書館長 廉祥燮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학생처에서 근로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장시간 빈자리를 조사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사물 같은 것을 거기다가 놔두고 간다든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一 委員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외람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관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그러니까 그 방법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선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 는 것이고요.

○中央圖書館長 廉祥燮 글썽요.

○李康一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되는 학교가 몇 군데 죽 있을 거예요. 벤치마킹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中央圖書館長 廉祥燮 그런데 연세대 같은 경우를 보면 학생들을 이용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도록 해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각 대학마다 사실 그것이 상당히 문제 시되고 있는데 어떤 뚜렷한 좋은 방법은 찾기가 힘들고요. 결국 열람실을 크게 늘리는 방법밖에는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李康一 委員 알겠습니다. 답변이 자꾸 길어져서 좀 그런데, 좋은 방법을 만들어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도서관 좌석수만 많아진다고 해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문제가 나타나는 좌석의 형태, 도서관 이용형태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 하면 어차피 좌석이 많다고 해도 어디 앉고자 하는 좌석들은 또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좌석수에만 의존하는 형태는 좋지 않은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나라의 형편 자체가 무조건 좌석부터

넓혀놓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업무보고라든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계속 지적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 좀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中央圖書館長 廉祥燮 네, 잘 알겠습니다.

○李康一 委員 연구하실 거죠?

○中央圖書館長 廉祥燮 네, 그럼요.

○李康一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桂洛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貴煥 委員 김귀환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대학교 입학금이 얼마입니까?

○事務處長 李容先 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등록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 나뉘어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학금만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경우에 14만 2,000원입니다.

○金貴煥 委員 상당히 적네요.

합해서는 총 얼마예요?

○事務處長 李容先 인문사회계열 같으면 158만 6,000원입니다.

○金貴煥 委員 이것이 사실은 상당한 서울시 예산이 시립대학교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500여 억원이 들어가고 있지요?

○事務處長 李容先 네.

○金貴煥 委員 그래요. 예산 가지고 말하면 길어지는데, 올린다고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事務處長 李容先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시립대학이 일반인들의 생각보다는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시립대학이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타 대학에 비해서 등록금이 싸다는 인식 하에서 그것이 강점으로 작용해서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최근 5년에 걸쳐서 등록금을 가장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서 근 6%를 인상했습니다.

○金貴煥 委員 학교에서 해외연수라든가 장학금제도는 어느 학교나 있는 제도여서 상당히 좋습니다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만큼 서울시 예산은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事務處長 李容先 네.

○金貴煥 委員 그래서 이것을 좀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다른 수단을 연구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지적해 드리고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事務處長 李容先 네, 알겠습니다.

○金貴煥 委員 지원금만 가지고 해외연수라든가 장학금제도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시립대학교니까 기여제도는 안될 것이고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금년도에 23명의 교수 신규채용이 예정되어 있는데 채용할 때의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투명하고 간략하고 알아듣기 쉽게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敎務處長 韓亨洙 신규교수 임용규정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채용분야별 채용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심사위원회의 3분의 2는 과내 교수 중에서 학과교수회의를 통해서 선발하고 3분의 1은 본부에서 총장이 교외 교수를 위촉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6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래 가지고 초빙분야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심사를 합니다. 기초심사라고 하는 것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공분야가 맞는가 하는 적부심을 하고, 그 적부심을 해서 기초심사를 통과한 분들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본심사에 들어가서 가장 채용할 만한 적실성이 있는 분들을 3배수 선정합니다. 그래서 본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3배수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를 70%…….

○金貴煥 委員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하면 다음에 해 주시고요.

○敎務處長 韓亨洙 네.

○金貴煥 委員 3월 15일자로 임용시험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敎務處長 韓亨洙 지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金貴煥 委員 채용할 때 어떤 심사기준을 두어서 이 사람들을 뽑았다고 하는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하면 23명의 교수를 모집하는데 지원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다…….

○敎務處長 韓亨洙 분야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金貴煥 委員 100명이 왔다라고 했을 때 100명의 자료를 다 저희들한테 공개해 줄 수 있습니까?

○敎務處長 韓亨洙 인사서류에서 공개여부의 무슨 문제점만 없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金貴煥 委員 그러면 심사기준을 정해준 그 기준 내용하고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원해서 원서를 냈던 분들의 서류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학교 가도 요즘 사회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교수임용과정에서의 어떠한 학연이라든가 지연 또 있고, 물품 고액의 금액이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좀더 투명성 있게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敎務處長 韓亨洙 네,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학교측에서도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는 게 학교발전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당히 정교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貴煥 委員 교수활동기금에 대해서 여쭙어보겠는데요. 연구활동 지원금요.

예를 들어서 수준을 연세대학교에 비교할 때 시립대학교 연구비 지원금이 낮은 겁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사립대학교는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게 힘들지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세대학교이나 고려대학 같은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 그런 데보다

는 저희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金貴煥 委員 한 50% 정도 됩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그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金貴煥 委員 그러면 국립대학교와 비교할 때는 어떻 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국립대학은 저희가 이번에 위원 님들이 연구비 증액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유사한 수 준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金貴煥 委員 그래요. 기숙사문제 때문에 제가 더 여 쥬어 보겠는데 누가 대답을 하시렵니까, 기숙사문제?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기숙사 건립추진은 저희 기획처 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金貴煥 委員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숙사를 만든다는 것은 지방학생들을 위해서 기 숙사 만드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건립 기금이 약 100억 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는 모양인데요. 그렇죠?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그렇습니다.

○金貴煥 委員 기숙사를 짓게 되면 학생은 몇 명이나 입소를 하게 됩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저희가 현재 총 181실에 408명 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金貴煥 委員 그러면 시립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어 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저희가 총 8,000명으로 보고 약

5% 정도.

○金貴煥 委員 예를 들어서 서울에 기거가 있는 학생이 기숙사를 원하면 주실 겁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방학생, 서울학생과 구별 없이 성적순으로 저희가 기준할 겁니다.

○金貴煥 委員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쓰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우선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그런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 중에서 가까운 데에 사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비교적 먼 데 사는 학생들이 요구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입사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건립이 몇 년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金貴煥 委員 입학금이 싸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전망 있고 유능한 학생들이 서울시립대학교로 많이 입학할 하게 되는데요. 돈 잡아먹는 서울시립대학교 500억 정도를 잡아먹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숙사문제라든가, 학생들, 또 교수님들 연구지원금 이런 것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崔桂洛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화 위원님.

○李致和 委員 이치화 위원입니다. 학생처장님 잠깐만

요.

○學生處長 李龍範 학생처장 이용범입니다.

○李致和 委員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취업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 2월말 기준에 졸업자가 1,422명인데 미취업자가 522명이에요, 순수취업자가 586명이고. 그러면 522명은 놔팽이가 됩니까?

○學生處長 李龍範 저희가 2월에 모은 자료인데요. 사실 졸업시즌에 저희가 대부분 취업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4월쯤에 한 번 더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4월에 파악할 때 정확하게 사실 나오지 않는 것이 졸업하고 나니까 연락들이 잘 안 되는 경우는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2월에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실 정확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월로 봤을 때 522명 정도가 취업이 안 되었던 것인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5월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취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까지 해서 약 40% 정도 가까이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2월 취업률은 올해 조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일이 졸업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 후해서 취업상황을 파악하면 60% 가까이 되리라고 보고 그 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4월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취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致和 委員 왜냐 하면 심각하거든요.

○學生處長 李龍範 그런데 저희가 취업이 덜 되는 부분

이 여학생들이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李致和 委員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나와서 취업을 못했을 때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야말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學生處長 李龍範 그래서 저희가 학생처에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처 처장, 부처장, 또 학장님들이 각 기업체도 돌아다니면서 기업체 부탁도 하고 해서 취업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致和 委員 그 다음에 교육경쟁력에 대해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분께 질문해야 되나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일단 질의해 주시면…….

○李致和 委員 교육경쟁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敎務處長 韓亨洙 위원님 말씀 요즘 유행하는 컨셉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李致和 委員 왜냐하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전체적인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를 정점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다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놀아요, 아이들. 그것이 가장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육경쟁력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

에요. 학자는 강단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숙제도 많이 내주어야 되고 고등학교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敎務處長 韓亨洙 이치화 위원님 말씀에 저희 교수들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대학입시 때를 절정으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면이 대학 때 약화되지 않느냐, 그런 점이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좁혀서요. 서울시립대학교만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학생들은 타 대학보다 비교적 성취욕이 강한 자수성가형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방학생들 가운데 서민층 자제로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겠는데 사립대학은 등록금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타 학교에 비해서는 학생들이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致和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과 대학이다 그러면 MIT다, 또는 연세대학이다 그러면 의예과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법정대학이다 그러면 고려대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립대학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학이 뭐가 있습니까?

○敎務處長 韓亨洙 저희 학교는 금방 이치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저희도 공감을 해서 저희 서울시립대학교가 모든 학과를 백화점 식으로 열 게 아니고 특성화해야 된다는 데에 대한 논의를 그동안 계속 해와서 도시과학대학으로의 특성화를 저희 학교의 브랜드네임으로 삼

고 그쪽을 심화시키기 위한 도시과학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致和 委員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맨 처음에 학생처장께 질문드린 것도 왜냐하면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열심히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다보면 취업문제 같은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왜, 모든 기업체나 이런 데서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육경쟁력이 물론 훌륭하신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히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물론 열심히 학생들도 하고 교수님께서도 열심히 지도하시지만 가장 문제가 예산지원, 예산타령 하시지 마세요. 아이들 혹독하게 좀 다뤄주십시오. 밤을 새워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자꾸자꾸 쌓이다 보면 저절로 서울시립대학이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누구보다도 서울시립대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敎務處長 韓亨洙 위원님 깊은 관심에 저희도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崔桂洛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간단하게 짚막하게 해주세요.

○夫斗完 委員 부두완 위원입니다.

어느 분한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취업에 관련해서 서울시립대학이 취하고 있는 형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學生處長 李龍範 학생처장 이용범입니다.

○夫斗完 委員 대외협력체라든지 아직 산학협력 이런 것이 없나 보죠?

○學生處長 李龍範 취업관계는 저희 학생처 산하에 취업부서가 있습니다.

○夫斗完 委員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상품으로 내놔야 되는데요. 그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디 토익이든, 토플 뭐든 아니면 입사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서 뽑히는 것 같은데 지금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기업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學生處長 李龍範 저희가 기업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기업설명회가 있습니다.

○夫斗完 委員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기업들이 그 학교의 학생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시립대학도 1년에 한 번씩 무슨 전람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래서 기업체도 참여시키고 각 학과마다 특성을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한 분야를 전람회에서, 예를 들어서 공대 같으면 정밀기계 쪽이면 CAD라든지 이런 것을 죽 봐서 취업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문학부 정도면 자기가 논문 쓴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초청, 기업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많이 참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하다보면 3회, 5회 정도 가면 재학생들이든 일단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고 취업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자기 개인의 능력을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해 볼 전람회 개최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學生處長 李龍範 저희 공대라든가 일부 학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과도 있는데…….

○夫斗完 委員 과로하지 말고 학교로 묶어서 해야…….

○學生處長 李龍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夫斗完 委員 그리고 며칠 전에 봤는데 우리 교육청 산하에 과학연구원이라는 데를 한 번 가봤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었습니다.

그것이 그쪽에 부족하면 우리 서울시립대학에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연구해 준 부분을 갖고 또 서울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도 그 전람회 때 와서 전체적으로 보고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서 뒤떨어져 있는 이공계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립대라는 데가 홍보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크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學生處長 李龍範 네, 검토하겠습니다.

○夫斗完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과대학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工科大學長 金昌敏 네, 공과대학장 김창민입니다.

○夫斗完 委員 나노연구소에 지금 대학원생 한 명과 교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工科大學長 金昌敏 학부 학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으로 출발했습니다.

○夫斗完 委員 네, 대학원으로 출발했지요.

○工科大學長 金昌敏 교수님 한 분에 지난번 공채에서 못 뽑았고 지금 현재 심사중입니다. 이제 곧 두 분이 되실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교수님 한 분에 대학원생 네 명입니다.

○夫斗完 委員 그런데 나노연구소에 지금 기초적인 자료라든지 학문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工科大學長 金昌敏 나노연구소를 작년 봄에 개설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노를 맡아주실 분이 9월에 임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셔서 그 분을 중심으로 현재 교내에 공지되어 있기로는 지금부터 일주일 이내에 나노과학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주된 목적은 올해 국가에서 나노과학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풀립니다.

100억에서 약 200억 정도 풀리는데 서울시립대학교가 그 안에서 유사한 전공을 가진 교수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것에 참여할 것인가 그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곧 가질 예정입니다.

○夫斗完 委員 그리고 새로운 총장님이 오시겠지만 이 나노연구소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서울시립대 하면 나노연구소가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이군요?

○工科大學長 金昌敏 지금으로서는 나노에 있어서 그 방향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IT관련으로 해 가지고 나노전자소자로서 출발하는 방향이 있겠고, 나노바이오로 출발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나노물성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첫 번째 모신 교수님이 물리학과 출신으로 물성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전자통신연구소에서 나노전자소자, 초고속 전자소자 Single-electron으로서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쪽으로 10년 이상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도 특화를 결국은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발상은 여러 가지를 묶어서 다 하자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특성화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시는 분이 제대로 모시게 될 것은 같은데요. 역시 그 전자소자를 어떻게 Single-electron으로서 구현할 수 있는가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모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립대가 대외적으로 나노과학 관련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초고속 전자소자가 되겠습니다.

○夫斗完 委員 사무처장님께서도 앞으로 나노연구소 하고 이럴 때 적극 지원해 주시고 학교 전체가 관심을 적극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桂洛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承業 委員 임승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있는 보험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3,700만원을 들여서 보험에 가입하시는데 2002년도의 경우 어떠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學生處長 李龍範 작년까지 22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습시다만 주로 학생들이 행사과정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체육행사중에 약 15건,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실험중에 5건의 사고가 있었고, 기타 작업과정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이 책임보험으로 해서 배상이 됐습니다.

○林承業 委員 매년 볼 때 사고율이 비슷합니까?

○學生處長 李龍範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林承業 委員 아, 그래요?

○學生處長 李龍範 네, 보통 20건에서 30건 정도 발생하는데 학생들이 운동하다 보면 다치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林承業 委員 2002년도 것만 사고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學生處長 李龍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承業 委員 그리고 그 밑에 건강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결핵검진을 연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결핵이라는 병이 우리 보릿고개 시절에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도 이렇게 결핵검진을 연 2회 실시할 만큼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그렇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기획발전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핵이 과거처럼 커다란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결핵에 소홀히 해서 최근에는 결핵에 걸리면 그 전과속도나 대처방법이 과거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만 결핵에 걸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학교 전체에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결핵검진을 하는데 매년 결핵에 감염된 학생들이 발견되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여기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 전체의 건강 또 학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林承業 委員 그러면 학생들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어떤 형태로 검진을 받고 있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X-ray 찍는 기계를 갖다놓고…….

○林承業 委員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다 찍는 거예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강제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를 주고…….

○林承業 委員 희망자에 한해서?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도서상품권도 주고 해 가면

서 유도를 해서 찍게 합니다.

○林承業 委員 그런데 2002년도에 결핵검진을 받은 1,862명 가운데 환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이것을 저희 기획부처장이 담당하고 계신데 오늘 다른 일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林承業 委員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林承業 委員 제가 질의한 것은 요즘은 결핵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다행인데 결핵에 걸린 학생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니까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林承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桂洛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興植 委員 김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는데, 교수님들의 오늘 회의 참석률이 상당히 낮은 것 같네요? 아까 재난사고로 한 명이 불참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분은 왜 불참했는지 모르겠고, 지금도 임승업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그 직원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답변에 임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립대학교가 세계 몇 위권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라든가 200대라든가 그 순위가 몇 대 학교에 속해 있다고 보십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기획발전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대학 중에서 세계 대학의 랭킹을 순위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사실 서너 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金興植 委員 사실은 서울대학교도 세계 100대 대학 속에 못 들어간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사실입니다, 그것은.

○金興植 委員 그러나 200위라든가 300위라든가 400위라든가 500위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인데, 꼭 100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교수현황을 봤더니 정원이 313명에 현원이 287명이네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金興植 委員 대충 교수 1명당 학생수가 27명 꼴, 학생수가 8,000명이라면서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金興植 委員 나누기를 정확히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는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학교가 서울시립대학이기 때문에 시에서 거주하는 자도 좋지만 외국인도 유치해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동아그룹도 리비아 수로 건설을 수주할 때 왕세자와 클래스메이트라는 것이 연관이 되어서 계약을 맺었다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계라는 것은 하나의 기업으로 보더라도 서로간에 연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립대학교도 많은 외국인 학생이 들어와서 공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 짓는 것도 제가 그 때 듣기로는 몽골 학생인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그 기숙사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기숙사에 들어와 있습니까?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저희가 기숙사는 아직…….

○金興植 委員 그러면 하나도 없다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면 몇 명이나 들어올 예정이에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기숙사를 지금 짓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 학생의 경우는 저희가 국제교류에 의해서 몽골 학생들이 매년 10명씩, 지금은 약 17·8명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金興植 委員 그런데 학비를 안 받고 그냥 무료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사안별로 다릅니다. 그쪽에서 등록을 하고 우리 학교로 오는 학생들은 그쪽에서 등록금을 냅니다. 만일 우리 학생이 그곳으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金興植 委員 몽골 같은 후진국의 학생들이…….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아무래도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

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金興植 委員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학교라는 것은 배움의 터전이지만 외국인 학생들과의 교류도 문제가 되거든요.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그렇습니다.

○金興植 委員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기숙사도 짓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興植 委員 지난번에도 제가 그 사항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興植 委員 이상으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桂洛 김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교직원 여러분, 열악한 의자에 앉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조속히 시정 또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공립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록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의 우수한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문대학으로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상임위원회 일정이 없으므로 모레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세종문화회관과 시립미술관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산회)

○出席委員

金基星 崔桂洛 兪仙穆 金貴煥
金明淑 金雲基 夫斗完 徐鍾和
李康一 李致和 林承業 鄭淵熙
金興植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서울特別市立大學校

總長 李棟

敎務處長 韓亨洙

學生處長 李龍範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事務處長 李容先

工科大學長 金昌敏

서울市民大學長 崔良秀

中央圖書館長 廉祥燮